

예리코의 소경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니콜라 푸생(Nicolas Poussin, 1594-1665)
1650, 캔버스에 유채, 119×176cm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파리

입당송 | 시편 105(104), 3-4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제1독서 | 예레 31, 7-9

화답송 | 시편 126(125), 1-2, 4, 5, 6(◎ 3 참조)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

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 히브 5, 1-6

복음환호송 | 2티모 1, 10 참조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복음 | 마르 10, 46-52

영성체송 | 시편 20(19), 6 참조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근상 시몬 신부 | 예수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자니, 살면서 피하고픈 참 아쉬운 말입니다. 우리는 애달픈 자비보다는 당당한 거래, 다른 이의 처분에 매달리는 비루한 삶 대신,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떳떳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남의 처분이 아니라, 내 요청이 힘을 얻는 삶을 사는 와중에 들이닥치는 가난은 곤란합니다. 오늘 복음 속 바르티매오처럼 내놓을 게 없는 가난은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자비에 기대어 외칠 뿐입니다. 천덕꾸러기. 사람들은 눈치를 줍니다. 세상이 이런 이들에게 기대하는 미덕이란 잠자코 사는 것. 소리 지르는 그에게 ‘많은 이가 잠자코 있으라 꾸짖습니다.’(마르 10,48 참조)

다행일까요, 우리도 가난하지만, 그보다는 좀 나아 보입니다. 청이 있을 때 그저 자비에 기대야 할 정도는 아닙니다. 대학 입학, 취직, 결혼, 삶의 갈피마다 주님 앞에 가져갈 청이 있고, 우리의 청에는 각자가 생각하는 봉헌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뭘 좀 내놓은 뒤, 고개를 들고 우리의 바람을 아뢰입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이렇게 봉헌하오니 이번 일은 좀 들어주셔야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분의 침묵. 자비로운 주님, 우릴 사랑한다는 그분의 응답이 너무 자주, 너무 느리고, 너무 부족하기에, 우리의 기도는 기쁨보다는 억울함을, 감사보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기 십상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잠자코 계시렵니까? 제가 뭘 얼마나 더 드려야 합니까?’

오늘 복음이 이 오래된 물음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주

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픈 것은 오직 하나, 바르티매오의 가난한 외침이라는 응답. 봉헌할 게 없는 그에게 세상이 한목소리로 으박지르고, 그 역시 이제 잠자코 무너져 버리고 싶지만 거슬러 일어난 외침, 무너졌지만 무너지지 않은 그의 외침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내놓을 게 없어 거래할 것도 없던 그에게 주님의 자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향한 비루한 외침이 주님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다는 기적은 그저 한 부분, 복음은 길을 모르던 그가 길을 찾았다는 깊고 긴 삶의 기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겉옷을 벗어 던지고”(마르 10,50) 다가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서는(마르 10,52 참조) 구원의 기적이 외침에 이어진 은총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 드려야 할 모든 것은 세상을 거슬러 일어서는 마음뿐. ‘당신이 남아있습니다. 제게 당신이 있으니 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거래를 멈추어야 하는 막다른 가난이 복된 은총이라고, 주님만 남은 우리의 가난이 맑고 투명한 눈이 되어 길을 보게 해주리라고 바르티매오가 격려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모든 이에게 주님은 언제나 응답하시는 자비라고 온 마음으로 그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배고픔, 당신의 응답이 오히려 완고하게 버티고 있는 우리 곁에서 참 오래오래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외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리코의 소경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그림 속 예리코의 소경이 용기를 내어 주님을 불렀던 외침이 믿음의 표현이자 구원의 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간절히 외칠 때 우리 자신과 물질에 눈이 먼 세상의 구원을 향한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임을 되새겨 봅니다.



성화
해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도은영 비아데레사 수녀 | 카프성모병원 원목실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

“하느님!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쩔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소서.”

저희 병원의 카프이용센터 입구에는 회복자가 보석 십자수로 만든 라인홀드 니부어의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 액자가 놓여있습니다. 중독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참 좋아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종결할 때 이 기도문을 캘리그래피로 적어넣은 엽서를 종종 선물로 드립니다.

상담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분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마음을 무척 아프게 합니다. 중독에 이르게 된 사연은 너무도 다양한데 그것에서 벗어나기 힘든 아픔은 또 얼마나 한결같은지 모릅니다. 많은 분이 깊은 죄책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술에 취해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과 되돌릴 수 없는 시간에 대해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하면서요. 죽을힘으로 단주를 이어가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회복과 재발의 삶을 도돌이표처럼 반복하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후회하면서 앞으로의 시간은 불안해합니다.

제가 상담 첫 시간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아무리 되돌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흘러간 강물처럼 놓아주시라고요. 하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음주 때문에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망가뜨린 것은 꼭 기억하셔야 한다고요. 그리고 바로 지금부터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 선택한다면, 시간이 흐른 뒤 오늘이 어제가 된 미래에는 좋은 것들로 삶이 채워져 있을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맨 먼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며 친절하

게 대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시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무조건 사랑하시니 지금의 자신을 그냥 받아들여도 된다고요. 자신을 수용하고 자기 돌봄을 매일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에 근력이 생기고 강해져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온전한 회복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중독의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AA(자조모임) 12단계 중 3단계는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삶을 하느님의 돌보심에 맡겨 드리기로 결심했다.”는 고백을 권고합니다. 이에 따라 술에 빠졌던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 오려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중독의 병을 앓고 계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하느님께서 누구보다 아파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가장 약한 자 안에 생생히 살아계신 그분을 카프에서 깊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저는 중독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주님처럼 섬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온전한 회복과 평온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컷
교리

묵주기도아말로
사회악을 물리치는
가장 효과적인 영적 무기

- 레오 13세 교황님 -

내가 나일 수 있는 곳



임여주 아네스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친구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건 너만 알고 있어.”라며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던 공간의 그윽한 공기도 생각 납니다. 학교 음악실이나 농구장 벤치, 학원 강의실 맨 뒷자리를 우리만의 아지트라 짐해두었습니다. 호기심 많고 예민한 십 대에게는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절실했으니까요.

김혜진 작가의 청소년 소설 《프루스트 클럽》의 주인공 윤오와 나원이, 효은이는 각자 나름의 상처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인 윤오는 이전 학교에서 생긴 어떤 사건 이후 새 학교에 전학을 왔지만 역시 이곳에서도 쉽게 아이들 속으로 물들지 못합니다. 나원은 영혼이 자유로운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한없이 명랑해 보이지만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 보입니다. 윤오와 같은 반인 효은이는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아 언뜻 보면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효은이의 가정에는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어느 날 윤오가 도서관 옆 좁은 골목 한구석에 있는 낡은 카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찾아내면서 세 사람과 카페의 인연은 시작됩니다. “나, 오데뜨라고도 불리거든.”(29쪽) 만나자마자 반말을 하는데도 기분 나쁘지 않은 유쾌한 사장님은 세 사람을 기쁘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독서모임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위해 잘 쓰지 않는 공간인 카페 창고를 열어줍

니다. 그곳에서 윤오와 나원이, 효은이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함께 읽으며 걸어두었던 마음의 빗장을 서서히 열게 됩니다.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간섭받지 않을 수 있는 이 안전한 공간에서 이들은 지금까지 자기 안에 꾀꾀 숨겨왔던 깊은 상처를 용기 내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윤오가 오래 묵은 상처를 드러낸 그날, 오데뜨는 뜨겁고 고소한 쌀죽을 끓여 내어 줍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는 따뜻한 죽 한 그릇과 내 아픔을 그대로 들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 준 소중한 공간. 그곳에서 윤오의 상처가 아물어 “아름다운 흉터”(174쪽)가 되어 갑니다.

청소년이 오롯이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시공간은 청소년의 성장에 무척 중요합니다. 나의 꿈을 이야기할 때 비웃음이 아닌 응원을 받을 수 있고, 나의 아픔을 그대로 들어주며 상처를 보듬어주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청소년은 존중과 신뢰, 희망을 배우고 자존감을 키워갑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전국에 청소년 전용 공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문화공간 JU(주)와 가톨릭청소년 이동쉼터 서울A지T(아지트) 등도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를 지원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청소년이 충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더 많은 ‘오데뜨’가 더 많은 ‘윤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건넬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리스도인 희망의 근거 - 하느님 사랑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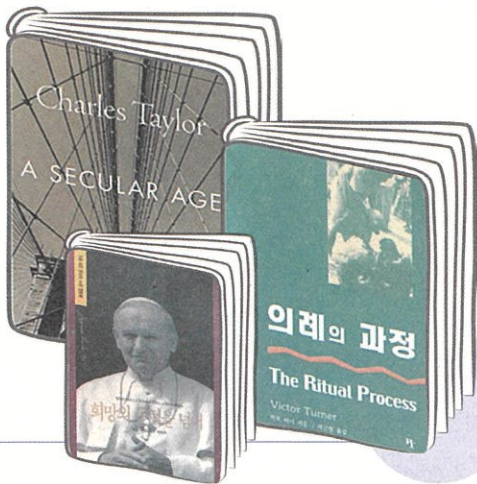
루카복음 16장엔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16, 19-31) 평소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와 그 집 대문 앞에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는’ 거지 라자로가 등장합니다. 각자 지상 삶을 마친 후 두 사람의 상황은 반대로 바뀝니다. 라자로의 아브라함 곁에 머물고, 부자는 저승 불 속에서 고초를 겪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십니까?

먼저 부자는 죽은 다음 왜 비참하게 됐을까요? 사는 동안 거지 라자로를 돕지 않아서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 거지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모두 죽은 다음 저 부자처럼 저승의 불 속에서 고초를 겪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부자들을 미워하십니까?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루카 18, 25)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는 모든 부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들, 오직 자신만 아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평소 제자들과 복음을 선포하며 다니셨고, 그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자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으며, 당연히 당시 부자들의 도움도 여러 번 받으셨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복음 말씀에는 그 부자가 어떤 악행을 저지르거나 죄지었다는 증언도 없습니다. 아마도 부자가 죽은 후 별 받은 이유는 사는 동안 하느님을 찾지 않고, 하느님 없어도 살

만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 추정됩니다. 딱히 큰 죄 짓지 않아도 하느님 없이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은 나중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라자로’는 왜 구원을 받았는가?입니다. 복음에는 라자로가 구원받기 합당한 행동을 한 정황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희망과 약속을 상징합니다.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이 참 많고, 때로는 삶이 버겁습니다. 하느님이 계신데 왜 죄 없는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편하게 살까요? 왜 하느님을 믿는 우리에게 삶이 이리 고단할까요? 확실한 사실은 하느님께서 지금 우리 처지를 잘 아시고,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나중에 다 갚아 주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라자로같이 하느님 믿고 따르는 사람, 고통 중에 사는 사람도 결국 그 품에 안길 것입니다.

“불의가 세상을 덮쳐도 불신이 만연해도 우리는 주님만을 믿고서 살립니다.” 가톨릭성가 28장의 가사처럼 사는 동안 하느님 믿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복 받을 것이고, 하느님 없이 사는 사람은 결국 벌 받을 것입니다. ‘상선벌악’(賞善罰惡). 가톨릭교회는 이 ‘믿을 교리’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시편 1, 1-2)



도서 | A Secular Age(세속 시대) | 의례의 과정 | 희망의 문턱을 넘어

세계청년대회를 보는 시선



김우선 데니스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2027년, 서울에서 세계청년대회가 열립니다. 이 대회는 1986년에 개최된 이래, 미디어와 일반 학자들도 주목하는 세계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청년들이 무엇을 체험하기에 전 세계에서 모이는가? 이는 오늘날 세계와 교회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문학적 시선에서 이를 해석할 때,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관점이 드러납니다.

첫째 시선은 세속화와 복음화의 맥락에서 세계청년대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서구 세속화의 결과로 청년 세대가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는데, 이 대회는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혁신적인 창안이라는 것입니다. 전통적 신앙 내용(십자가, 이콘, 교리교육 등)을 청년 세대의 감수성에 맞는 양식(순례, 축제, 문화 행사 등)으로 성공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복음화에 공헌했다는 의미입니다. 철학자 찰스 테일러도 《A Secular Age(세속 시대)》라는 저서에서 이런 접근을 합니다. 그는 제도적 소속보다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 의미를 찾는 ‘진정성의 시대’에 이런 대회가 청년들에게 잘 맞는 종교적 형태라고 봅니다.

둘째 시선은 세계청년대회에서 경험하는 ‘공동체성’ 체험에 주목합니다. 청년대회 참여는 쾌적한 여행이 아니라 불편을 감수하는 순례입니다. 멀리서 온 청년뿐 아니라 홈스테이를 제공하여 순례자를 맞아들이고 환대하는 가정도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대회를 통해서 신앙인의 정체성, 가치관을 심화하고, 어떤 이는 심지어 ‘인생이 바뀌는’ 경험도 합니다. 이들은 평상시의 사회적 지위나 의무, 계층을 초월하여 평등하게 연결되

는 상태, 즉 문화인류학자 빅터 터너가 《의례의 과정》에서 말하는 ‘커뮤니타스’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셋째 시선은 세계화와 가톨릭 세계시민의 관점입니다. 세계청년대회의 역사는 20세기 후반 냉전의 해체와 경제적·문화적 세계화, 과학기술 혁신 등과 맞물려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세계화 흐름 속에서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 사회관과 인간관을 교육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가톨릭적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우정의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외국 친구와 우정을 맺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할 뿐 아니라, 전쟁과 평화, 빈곤과 발전, 생태와 같은 공동 이슈를 성찰하고 대화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순례자는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를 넘어서 세계교회를 감지함으로써 가톨릭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인문학적 시선은 관료적·행정적 접근이나 양적인 성공을 넘어서 한층 넓은 지평을 열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선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청년들의 목마른 시선과 이를 대하는 그리스도의 시선입니다. 일찍이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희망의 문턱을 넘어》에서 그 시선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나 교황이 가는 곳이면 교황은 젊은이들을 찾고 젊은이들은 교황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실, 그들이 찾는 것은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선이 2년 남지 않은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는 매일의 우리 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멈추어 서다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홍보국장

얼마 전 서울 근교 성지를 순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지 미사에 함께하는데, 성지 담당 신부님께서 한국 교회 초창기 교리서였던 《요리 강령》의 내용을 중심으로 십계명의 제3계명을 주제로 강론해 주셨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계명이지요. 지금은 ‘주일’이라는 이름만 남았지만, 예전에는 주일을 다양하게 불렀다는 것, 주일미사 참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침·저녁기도를 빼먹으면 밥도 먹지 못했던 당시 신앙인의 모습을 구성지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구교 집안에서 태어나 유아세례를 받고 자랐지만, 예전 어르신들이 받았던 만큼 엄격한 신앙 교육은 아니었습니다. 성지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 신자들께서 정말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신앙이 열리는 듯한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박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오륙십여 년 전의 옛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그렇게 사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삶이 풍족하지 않아서였을까요? 결핍, 아쉽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나 혼자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어서 더 하느님을 찾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또 있을까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삶의 단순함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를 사셨던 분들도 바빴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때와 다르게 오늘날 우리 삶은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복잡다단한 삶입니다. 단순

히 바빠서 하느님 찾을 시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의 생각과 관심, 의식을 사로잡는 대상이 너무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모습 역시 ‘인간’이어서 겪게 되는 약함이자 한계입니다. 원죄 이후의 우리는 모두 근본적인 자기중심성을 띠고 있어서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지금의 본성에 더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쉼 없이 생각하고 재고 준비하는 우리 의식에는 하느님께서 활동하실 틈이 없습니다.

답은 의식이 아닌 무의식에 있다 싶습니다. 전문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의 세계까지는 못 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가쁜 호흡을 멈추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생각(의식)의 흐름이 아니라 저 밑바닥에서 묵묵히 버티고 있는 마음(무의식)으로 내려가 잠시 멈출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신앙이, 단순한 신념이나 가치관이 아닌 삶 자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삶의 형태가 복잡다단한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걸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안에서 잠시 멈추어 설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참으로 원한다면요.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1열왕 19,12)

상단 큐알(QR)코드를 통해 지난 연재글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0년 10월 31일 유영근 요한 신부(43세)
- 1984년 11월 1일 최창정 요아킴 신부(47세)
- 1993년 11월 1일 최석호 바오로 신부(73세)
- 2021년 10월 28일 경갑실 사도요한 신부(72세)

11월 1일(금)은 '모든 성인 대축일'입니다

서울주보 게재 신청 안내

-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교회기관 · 수도회이거나, 서울대학교 사회사목국 · 서울대학교 사목국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이 의뢰하는 광고나 상업적인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 내용 수정 · 취소는 주보 게재일로부터 2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11월은 위령 성월이며, 11월 2일(토)은 '위령의 날'로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교회는 오랜 전통에 따라 '모든 성인 대축일' 다음날인 11월 2일을 '위령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성인들을 먼저 기념하고, 이튿날에는 연옥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자는 뜻입니다.

용산 성직자 모역 (용인공원모역 내) 문의: 02)796-1846 한강성당	때: 11월 2일(토) 오후 2시 참석 범위: 제8 성동-광진지구 ~ 제1 중구-용산지구 신부님과 본당 신자 미사 집전: 교구장과 사제단 공동 집전 전체준비 및 강론 담당: 제1 중구-용산지구
	때: 11월 2일(토) 오후 2시 참석 범위: 제2 서대문-마포지구 ~ 제7 동대문-종랑지구 신부님과 본당 신자 미사 집전: 총대리와 사제단 공동 집전 강론 담당: 제7 동대문-종랑지구

교구청 알림

기후 위기 그리고 노동의 미래

대상: 관심있는 누구나

때, 곳: 11월7일(목) 14시~17시, 가톨릭회관 2층

문의: 02)460-7622 주교회의 노동사목소위원회

제4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터카-그리스 성지순례

때: 2025년 1월6일~17일(11박12일) / 지도: 김덕재 신부

주관: 성서못자리 / 문의: 010-6734-0190 심 소하

데레사(문자 또는 카카오톡 문의)

서울대학교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11월7일(목) 오후 2시~3시, 문화관 2층 소

성당(코스트홀) / 집전: 양용석 신부(페루 선교)

문의: 02)727-2407, 2424

2024년 가을걷이 감사미사 및 도농한마당잔치

때: 11월3일(일) 9시30분~16시

행사: 가을걷이 감사미사(12시)-정순택 대주교 주례, 서울대학교 사회사목국 사제단 공동집전 · 생명농산물 직거래 나눔 장터, 전시 · 문화 · 체험 · 먹거리마당(9시30분~16시)

곳: 명동대성당(앞마당, 성모동산, 가톨릭회관 앞마당)

주최: 천주교 서울대학교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일회용품 · 비닐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장바구니를 지참해주세요 / 문의: 02)2068-7066(wm.or.kr)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겨울학기 모전(성음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11월1일(금)~22일(금) / 3개월 수업(12월~2월)

곳: 최양업홀(전절 1 · 4호선 서울역, 2 · 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겨울학기	실기전문과정	오르간 · 피아노 · 반주 · 성악 · 합창지휘 · 작곡 · CCM · 관악기 · 현악기 · 바르코악기 · 국악
	양장반	그레고리오성가 · 성악(남 · 여) · 플루트 · 현악 · 목관 · 리코더 · 클래식기타 등

2024 요한계 문헌 특강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성경 지참) / 강의: 조창수 신부

내용: 요한복음, 요한서간, 요한묵시록

때, 곳: 11월8일(금)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문의: 010-8889-5425(문자) 성경&영성 아카데미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때, 곳: 10월31일(목) 19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제: '교정시설의 열악한 환경개선'

지향: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주최: 서울대학교 사회사목국

주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 문의: 02)921-5093

2024년 세계자살유가족의 날 기념행사

대상: 자살유가족 및 자살예방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행사: 1부 10시 미사(오송원 본부장 신부), 2부 11시

특강(정현채 (전)서울대학교 의학 박사)

때, 곳: 11월16일(토),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신청: 홈페이지(3079.or.kr) 공지사항 참조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위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육, 이웃)

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민족화해위원회

1) 2024 한반도평화나눔포럼

내용: 한반도 갈등 해소를 위한 교회 인식 제고 및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 평화 토크콘서트

대상: 누구나 참여 가능 / 주제: 평화를 향한 여정

때, 곳: 11월15일(금) 오전 10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코스트홀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sharepeace.net) 참조

2) 1440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10월29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녘본당': 평양교구 의주 본당

문의: 02)727-2420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가톨릭글씨문화연구회 제5회 정기회원전: 2, 3전시실

염동국 신부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10월23일(수)~31일(목)

본당 수도자 연수

주제: 사목교서 해설 · 본당 공동체 복음화를 위한

수도자의 역할 / 사목국 홈페이지에서 개별 신청

때, 곳: 11월19일(화) 14시~16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회비 없음(11월12일 마감)

문의: 02)727-2063 사목국 교육지원팀

<명동 겨울 축제> 관련 공개입찰 공고

문의: 02)727-2047 /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보 홈

페이지(<https://cc.catholic.or.kr>) 참조

1) '라디오 공개 방송 및 미디어 파사드 설치와 운영' 건

12월24일(화)~25일(수) 중 진행될 '라디오 공개 방송 및

미디어 파사드 설치와 운영' 건을 공개입찰합니다

2) 'LED 장미 정원의 설치, 관리' 건

11월30일(토)~2025년 1월6일(월)까지 진행될 'LED

장미 정원의 설치, 관리' 건을 공개입찰합니다

향심기도 월피정 / 문의: 010-4565-8898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지도: 이승구 신부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 회비: 1만원

직장인	11월3일(일) 13시30분~16시30분
일반인	11월4일(월) 13시30분~16시30분

해설이 있는 천주교 서울순례길 도보순례 접수 안내

신청: 10월28일(월)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검색창:

순교자현양위원회) 선착순 접수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 회비: 1인 7천원

일시	코스	비고
11월2일(토)	3코스 일치의 길	3-2구간(노고산-삼정산) 일부구간 대중교통 이용
11월5일(화)	2코스 생명의 길	
11월19일(화)	1코스 말씀의 길	

인준단체 알림

모임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11월1일~30일 / 문의: 010-8867-3217

ICPE선교회 흡승기도회·미사 / 문의: 010-8724-4787

때: 11월3일 오후 3시~6시(미사 있음), 과달루페
 외방선교회(합정동) /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채팅

낙태 후 화해 피정(착한목자수녀회)

때: 11월15일(금)~17일(일), 12월6일(금)~8일
 (일) 2박3일,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인천)
 회비 없음 / 문의: 010-6637-1366 담당자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음악 피정-인천 체나콜로 찬양팀 / 담당: 김종국 신부
 때: 매주(화) 10월29일 12시30분~16시
 곳: 가톨릭회관 7층 / 문의: 010-5514-4077 회장

성모승천수도회 십자가도보성지 순례

때: 2025년 1월16일(목)~19일(일) 3박4일
 곳: 제주교구 성지(추자도 1일 일정 포함)
 문의: 010-3080-9104 / 사전 접수 필수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내용: 고해성사, 미사, 묵주기도, 성체조배
 때: 11월2일(토) 15시~18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영성과 함께하는 몸 비우기(도미니코 수도회)

영육간의 건강을 효소로 다스리는 피정
 때: 12월6일~9일, 일만위 순교자 피정의 집(강화)
 회비: 42만원(효소비 5일분 포함) / 문의: 010-9363-7784

세계 3대 성모발원지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신부 동행
 때: 2025년 1월24일~2월2일(9박10일, 설연휴 기간)
 문의: 02)2258-8983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주제: 진복팔단은 우리를 성인으로 이끈다 / 회비: 1만원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찬양: 고영민
 때: 11월9일 14시~18시, 구산성지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예수회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피정 및 강의

1) 영신수련 대침묵 피정 / 문의(접수): 02)3276-7794

12월28일(토)~2025년 1월6일(월)	예수마음배움터
1월16일(목)~25일(토), 2월5일(수)~14일(금)	수원 말씀의 집

2) 영성연구소 무료 정기강좌 / 문의(접수): 02)3276-7799

희망의 순례자들 / 송봉모 신부
 때: 11월14일(목) 14시, 예수회센터 성당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운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대림 1일 피정(개인·소그룹)	12월5일(목), 12월19일(목)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11월8일~10일, 12월20일~22일(연말 피정)
엄마와 딸·아들(미혼) 피정	11월23일~24일
영신수련 8일 피정	2025년 1월3일~12일(9박10일)

서울대교구 성령새신봉사회 위령성월대회

강의, 기도회, 울동, 찬양, 고해성사
 때: 11월3일(일) 13시~17시(미사 16시), 전철 2
 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500·504·651 환승-
 천주교성령봉사회 하차 / 문의: 010-3242-6868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때: 연말연시 12월30일~2025년 1월2일(한라산·해님
 이·해돋이), 생태순례 12월7일~9일·12월13일~15일
 ·3월15일~17일, 한라산 눈꽃산행 1월17일~19일·1
 월23일~25일·2월8일~10일·2월14일~16일·2월22일
 ~24일,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11월18일~21일·11월
 24일~27일 / 문의(접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한라산 눈꽃산행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연말연시 12월29일~2025년 1월1일(한라산·해님
 이·해돋이), 11월21일~23일·12월1일~3일·12월6일
 ~8일·12월14일~16일, 한라산 포함 1월11일~13일
 ·1월16일~18일·1월20일~22일, 추자도 포함 11월
 25일~28일·3월13일~16일·3월23일~26일 / 문의(접
 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가정선교회 11월 피정·미사

때: 12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명동대
 성당 포스트홀 /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토요피정과 성모신심 첫도미사	11월2일(토) / 박현배 신부
성가정	11월13일(수) / 회비: 1만원
영성 피정	송봉모 신부, 한철호 신부, 김재덕 신부, 이현주 회장
치유·회복을 위한	11월16일(토) / 윤민재 신부
찬양 피정	찬양: 고영민 부회장, 손현희 팀장

지혜의 샘 11월 프로그램

곳: 지혜의샘(부천시 경인로 61-1) 5층 / 010-3248-9705

목요 영성치유 아카데미(내·외적, 영적치유)	
매주(목) 10시30분~17시30분 / 강사: 이창진 신부, 이상기, 김완식, 고영민, 한영임 회장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10월30일 / 한연홍 신부, 한영임 회장
위령 성월 피정	11월4일 / 이상희 신부, 한영임 회장
죽음보다 더 큰 사랑	11월18일 / 장재봉 신부, 한영임 회장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일 첫번째(금) 11월1일 10시~15시30분
고3 수험생 부모님 피정	11월14일(목)
단식 피정	11월25일(월)~29일(금)
대침묵 피정(요한묵시록)	12월11일(수)~14일(토)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300주년 기념경당
노베나 기도	11월2일(토)~10일(일)까지 9일 동안
신청	미사·위령기도 봉헌해드립니다
단체 피정(자체·위탁) / 개인 피정 가능	

교육

미사 전례를 위한 오르간 교육 / 문의: 010-9468-7660

곳: 대치2동성당 / 주최: 대치2동 오르간아카데미

스테인딩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딩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

주제: 희망의 순례자들
 맡음: 조성풍 담당 신부
 때: 11월3일(일) 13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문의: 02)753-8765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12월10일~24일 매주(화)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서강대학교 영성 특강 / 문의: 02)705-4711

주제: 전례와 신앙체험-미사를 중심으로 / 회비 없음
 때: 10월28일(월) 14시~16시(강의·미사), 서강대
 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 강사: 구정모 신부(예수회)

얼굴 윤리학-전진상 영성센터 월특강

타인의 얼굴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가가기
 때: 11월19일(화) 14시~16시 / 강사: 박연규 교수
 곳: 전진상 영성센터(명동) / www.ijscen.or.kr
 회비: 2만원 / 문의: 02)726-0700 전진상영성센터

2025년 전기 가톨릭대 문화영성대학원 신입생 모집

모집: 문화영성학과(석사과정) / 전공: 문화영성, 사목영성
 접수: 10월28일~11월10일 / 면접: 11월22일 19시 예정
 곳: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서울반포)
 문의: 02)3147-8787(http://gcs.catholic.ac.kr)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신입생 모집(2025년 전기)

모집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
 학 석사과정 / 입학전형: 12월2일(월) 14시
 원서접수: 11월4일(월)~15일(금) 17시
 문의: 02)3147-8156 대학원교학팀, 02)3147-8664 조교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2025년 후기 신입

입생 모집 / 문의: 02)3147-8781
 사회복지학 석사과정(학기) / gsocialwelfare.catholic.ac.kr
 학과: 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 노인복지, 정신건강복지
 접수: 10월28일(월)~11월10일(일) / 면접: 11월22일(금)
 곳: 성의회관(서초구 반포대로 222 / 서울성모병원 내)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25년 전기 신입생 모집

전공: 독서교육, 상담교육, 유아교육, 진로진학상담,
 특수교육, 직업특수교육, 평생교육, 한국어교육
 모집: 10월28일(월)~11월10일(일) / 면접: 11월22일(금)
 홈페이지(https://ged.catholic.ac.kr/ged/index.do) 참조
 문의: 02)2164-4176, 4787, 4173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멀티미디어학전공 4차 모집

원서접수: 10월30일(수)까지 / 문의: 02)705-8678
 전형일: 11월2일(토) / 모집: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
 트, 게임그래픽·만화애니메이션, 게임 개발
 서강대학교 총장명의 학위(미디어공학사) 수여, 본
 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입학시 장학혜택 제공, 학
 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3년 이내 학사취득 가능
 홈페이지: www.soganggame.ac.kr

제25회 가톨릭평화방송 겨울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pbccamp.com)

미국	2025년 1월15일~2월4일(3주) / UCLA·UC버클 리·스탠포드 재학생 간담회, 유니버설, 디즈니 랜드, 그랜드캐년,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사이판	2025년 1월11일~2월4일(4주) / 가톨릭국제학교 정규 수업, 마나가하선, 워터파크 다양한 현지 액티비티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청소년 자원봉사자 모집(성빈센트청소년회)

대상: 초6학년~고3학년 / www.stvin.or.kr
내용: 연탄 나눔, 교도소 방문, 해외봉사 / 02926-3440

재속전교가르멜회 회원 모집

전교가르멜수녀회의 은사에 따라 관광과 활동으로 복음적 삶을 살고자하는 남녀 평신도
11월30일까지 접수 / 010-5399-3371, 010-9572-8282

제12기 청년해외봉사단 모집

때: 2025년 2월8일~16일(8박9일 제주항공)
곳: 필리핀 바그나 / 인원: 선착순 15명
회비: 항공료(본인 부담), 일체비용 지원
11월30일까지 이메일(goons@hanmail.net) 접수
문의: 02)335-3332 사무국, 010-5449-6448
주최: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미사

오기선요셉장학회 월례미사

집전: 오태순 신부 외 사제단 / 문의: 010-8982-9819
때, 곳: 10월31일(목) 오후 3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위령의 날 미사

때: 11월2일(토) 오후 3시 / 문의: 02)3147-2402
곳: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B3 콘솔레이션홀

콘랜두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미사

때: 11월2일(토) 10시 /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곳: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 문의: 02)793-2070

절두산순교성지 로사리오회 예수성심 신심미사

내용: 연령과 가정을 위한 기도와 미사
때, 곳: 11월1일(금) 11시10분, 절두산 성지(전철 2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문의: 02)3142-4434

웅기장학회 월례미사

때, 곳: 10월28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주례: 박범석 신부,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최광희 신부 /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 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문의: 02)727-2525 사무국

첫토요일 신심미사·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주최: 서울대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1) 첫토요일 신심미사

내용: 성모님의 요청대로 미사
때, 곳: 11월2일(토) 9시30분~12시, 가톨릭회관 3층

2)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

때: 11월4일~12월9일 매주(월) 9시30분~12시
곳: 가톨릭회관 7층

안내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문의(예약): 010-3173-2665 최영민 신부(예수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ca.or.kr)

삼양동 선교본당 재활용매장 '살림'

의류·가방·신발·생활용품·가전제품을 기증 받은 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기증 수거방문 기준: 2상자 이상 / 문의: 010-5751-3978

성라파엘상담소 / 문의: 070-4278-7573

우울, 불안, 인간관계 어려움 / 심리검사
법정 저소득 가정 무료 상담 / 안양(중앙성당) 1만원
·분당(구미동성당) 2만원 ·서울 목동(파전)

천주교 의정부교구 건설 협력사 모집

접수: 의정부교구 홈페이지-소식-교구소식 '천주교의정부교구 건설 협력사 모집 안내' 게시
물 참조 / 문의: 031)850-1427

무지카사크라서를 합창단 40주년 대림성탄음악회

때, 곳: 12월6일(금) 20시, 목5동성당 / 전석 초대
지휘: 신기호 신부 / 문의: 010-9464-0680
55세 미만 남성 단원 모집

2024년 서울대교구 전례꽃잎이 연구회 제15회 묵상 전시회

주례: 전호엽 신부 / 문의: 010-5236-5493 정은희 회장
개막미사: 10월31일(목) 10시30분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폐막미사: 11월1일(금) 16시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수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나팔을 불어 희망의 기쁨을 선포하는 해'

2025희년을 바라보며 김수환 추기경님 선종 15주년 기념 음악회 / 전석 초대
연주: 서울 가톨릭합창단, 부산 가톨릭합창단
때: 11월11일(월) 19시30분,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문의: 010-3211-5195 (문자) 가톨릭합창단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분양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묵주기도성월 음악회

문의: 010-9842-8818 시스띠나
1) 시스띠나시니어 합창단
때: 10월30일(수) 19시30분 / 비발디 글로리아 전곡 연주
곳: 서강대학교 내 이냐시오성당 / 무료 초대
2) 이슬리스띠 합창단
팔레스트리나미사 전곡 연주 / 전석 3만원
때, 곳: 10월31일(목) 19시30분, 서울 성공회 대성당

제11회 가톨릭영화제·10월 영화 치유 미사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1) 제11회 가톨릭영화제
때, 곳: 10월24일(목)~27일(일),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전철 4호선 명동역 6·7번 출구)
주제: 조화로운 삶 / 카탈로그: caff.kr/catalog
2) 10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10월30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가톨릭성가페스타 2024년 축제 초대

때, 곳: 11월2일(토), 서강대학교 메리홀대극장
문의: 010-5245-2848 심준보 / 주최: 서울대교구 성음악위원회·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1부	14시-모차르트관악 미사곡 연주 / 지휘: 이상철 신부
2부	16시30분-가톨릭성가대교향콘서트

유관단체 알림

한국 키로(CHIRO Korea) 오픈데이

월 2회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운동인 키로(CHIRO)가 오픈데이에 초대합니다
대상: 초1~중1 자녀와 부모 / 문의(접수): 02)744-0840
때, 곳: 10월19일(토)·11월16일(토) 10시~13시, 햇살사목센터(주최, 종로구 혜화로2길 20)

직원모집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공지사항 반드시 참조 / 이메일(hr1886@catholicbook.kr) 접수

모집 분야	담당 업무
경영관리국	재무회계
편집국	전문 편집 / 복디자인
프리에르 사업팀	웹·콘텐츠디자인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효준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11월9일(토) 14시~10일(일) 13시	본원(경북 왜관)	010-8353-2323 (문자)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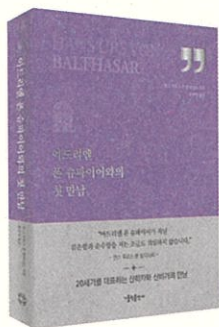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위령 성월 추천 도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신간



아드리엔 폰 슈파이어와의 첫 만남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 지음 | 3만원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발타사르와
신비가 슈파이어의 만남

현대 신학의 거장 발타사르가 전하는
아드리엔 폰 슈파이어의 생애와 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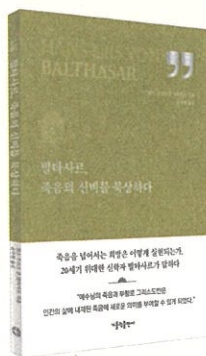
침묵 그리고 은총의 빛

에디트 슈타인 지음 | 1만3천원

하느님의 은총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고 묵상하는가?

사랑의 증거자, 에디트 슈타인 성녀의
영성이 담긴 묵상집

위령성월



발타사르, 죽음의 신비를 묵상하다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 지음 | 1만3천원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서 발견한 희망의 빛

죽음 속에서도 영원을 갈망하는
인간 존재의 역설을 탐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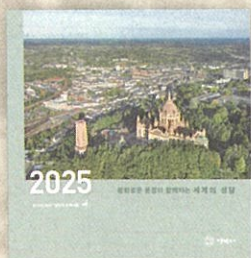
연옥 실화

막심 피상 지음 | 1만5천원

연옥은 과연 어떤 곳인가?
연옥 영혼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화되는 곳,
연옥에서 만나는 하느님의 신비

가톨릭출판사 2025 CALENDAR



A형

평화로운 풍경이
함께하는 세계의 성당



B형

기도를 담은 풍경



C형

성화와 함께하는
거룩한 일상



탁상 달력
A형 이미지 수록



탁상 메모
다이어리

대 A4 중 B5



일쁘디
다이어리



가톨릭출판사

구입문의

02) 6365-1888 · 가톨릭출판사 인터넷쇼핑몰

www.catholicbook.kr ▼





제2시대문 · 마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부주임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청진하시!”

◎ 위령의 날 미사

11월 2일(토)	오전 6시	(합동위령미사)
	오전 10시	(성모신심미사)

11월 2일(토) 오전 6시미사는 위령의 날을 맞아
죽은 이들을 위한 합동위령미사로 봉헌됩니다.
※ 미사 후에 연도가 있습니다.

◎ 중고등부 가을소풍

일시 : 10월 27일(주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8시

장소 : 서울랜드 / 회비 : 20,000원

대상 : 중등부 1학년 ~ 고등부 2학년

접수 : 학년 담당 선생님 전화 or 카톡

문의 : 사도요한 교감 (010-4041-3769)

※ 10월 27일(주일) 오전 10시 30분미사는 없습니다.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 (9월~10월)

성명	세례명	구역/반	성명	세례명	구역/반
진윤주	제니카	2-2	강석자	모니카	2-4
황도준	스테파노	3-1	박현수	요한	3-3
김혜원	미카엘라	5-1	임정렬	베네딕도	5-2
정명주	루치나	5-3	신민재	라파엘	6-5
김반디	클라우디아	8-2	민재홍	사도요한	8-2
이병훈	미카엘	9-2	김명희	요안나	10-1
김원희	마리아	10-6			

◎ 전입교우환영식

일시 : 10월 27일(주일) 교중미사 중

◎ 성모신심미사 : 11월 2일(토) 오전 10시

◎ 유아세례 : 11월 3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연령회 미사

일시 : 11월 5일(화) 오전 10시

매월 첫째째 화요일 10시에 연령회 미사(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돌아가신
연령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 2024 연희동 청년 음악회

한푸름 청년 성가대와 임마누엘 홀리챔버가
한마음으로 준비한 가을 음악회에 초대합니다.

일시 : 11월 9일(토) 오후 7시 / 대성전

※ 11월 9일(토) 오후 6시미사는 없습니다.

◎ 수험생 축복 미사 : 11월 12일(화) 오후 7시

◎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회 모집

아이들과 함께하실 (청년)선생님을 모집합니다.

미사시간 : 매 주일 오전 10시 30분

문의 : 사도요한 교감 (010-4041-3769)

◎ 본당 사무직원 친절도 조사 안내문

본당 사무직원 친절도 조사 안내문

찬미예수님, 천주교 서울대교구(사무처)입니다.
본 조사는 신자님께서 소속 본당 [연희동]의
사무직원과의 만남을 통해 느끼신 친절도
수준을 알고자 진행하는 조사입니다.
응답 소요 시간은 약 3~5분 정도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시기 2024년 10월 27일 ~ 11월 10일

조사방법 QR코드를 활용한
설문 참여포상 전체 1위(1명): 상금 500만원
지구 별 1위(18명): 상금 100만원

◎ 교무금 책정 현황 (2024. 10. 20)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률)	납부세대 (납부율)	2023년 책정률	2023년 납부율
2,006	795 (39.6%)	763 (38.0%)	43.7%	42.3%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헌금 (10월 14일~20일)

곽선모오천원 익명삼십만원
익명일백만원 장영희일십만원
한인경이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전교주일)

교 무 금6,458,000원
주일헌금4,709,000원
전교주일2차헌금1,489,000원

입당	2	봉헌	216,217,512	성체	498,499,501	파견	257
----	---	----	-------------	----	-------------	----	-----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